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와 축산발전협의회(회장 김대현, 인제축협장), 축산관련학회협의회(회장 강창원, 건국대 교수)는 지난 6월 25일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에서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에 앞서 각 단체 대표자들은 지난 6월 22일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승호 회장을 상임위원장으로, 김대현 회장과 강창원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이승호 상임위원장은 “농·축협 중앙회 통합에서 축산부문을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통합협법에서 축산경제 특례조항으로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농협 신경분리 과정에서 축산조직을 무시하고 확대하려는 의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농협중앙회 사업분리와 관련한 축산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건의 내용을 수용하는 결과에 따라 활동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

물난리 가축피해 'NH가축보험' 조속 지급

영·호남 지역에 시간당 최고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비가 내려 축사가 침수되거나 붕괴되고 가축이 폐사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농협중앙회 집계 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으로 피해현황은 오리 4만 3천수, 닭 22만8천수, 돼지 600두, 축사 1개동 전파 등 총 6억7천800만원에 달한다.

농협중앙회는 이중 NH보험에 가입된 오리 2만수, 닭 7만5천여수, 돼지 600두, 축사 1개동에 대해서는 2억4천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김진우 손해보험부장은 “올해는 기상 이변 등으로 국지성 폭우를 비롯해 풍수해, 폭설 발생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많은 축산인들이 축산관련 재해를 보호하는 가축보험에 꼭 가입해 만약의 피해에 대비하길 당부 한다”고 말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상반기 결산, 하반기 사업설명회 개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지난 1일 수원 소재 축산과학원 대강당에서 '녹색성장 개발기술 확산 전문 기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라 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축산과학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데 주력해 왔음을 강조하고, 향후 국가정책의 주요 키워드인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에 맞는 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축산과학원은 양계와 관련하여 한국 고유 재래닭 품종을 복원해 왔으며, 대표 브랜드인 '우리맛닭'의 종계 보급을 통해 실용화에 앞장서고 있다.

녹색 에너지로 닭 키우니 일석삼조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 중에 있으며 개발기술의 조기 확대 보급을 목적으로, (주)하림, 진안군농업기술센터, 한성농장 등과 실증시험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을 통하여 53,000수 규모의 육계농가에서 3년간 실증 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기술은 지열을 이용하여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지구온실가스 발생도 줄이고 생산성까지 향상시킬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 가금과 서육석 과장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수직개방형 지열 냉난방시스템은 지하 200~450m의 지하수를 펌어 올려 히트펌프에서 유효에너지로 변환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고 계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실제 농장에서 실증시험을 통하여 적용성이 높은 기술을 조기에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방역사 양성·보수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정부의 가축질병근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가축방역 전문인력 양성과 현재 활동 중인 가축방역사의 원활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가축방역사 양성·보수교육을 대전시 유성구 소재 신협연수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방역본부 직원 109명과 일반인 41명을 대상으로 가축방역정책·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대한 설명과 소브루셀라병·돼지소모성질화 등 축종별 주요가축전염병에 대한 이론교육과 환경측정장비 활용 우수사례 등 현장 경험 사례교육을 통해 가축방역사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창립 6주년 기념 및 한마음 체육행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6월27일 충북 옥천공설운동장에서 450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 및 한마음 체육행사'를 개최했다.

배상호 본부장은 “그동안 우리본부는 정부의 방역·위생·검역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 성



장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구축을 통하여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 축산물 공급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본부는 이날 축구대회, 이어달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충북지역 유관기관장님들과 함께 임·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화합하고 단결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소비자단체 임원진 HACCP 지정 현장 방문 실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축산물HACCP제품 인지도 향상을 위한 2009년 2차 소비자 HACCP 현장방문을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에 걸쳐 실시했다.

참석자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정광모 회장, 한국소

비자단체협의회 김천주 회장, 한국소비자교육원 전성자 원장,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황명자 부회장 및 소시모 강광파 이사를 비롯한 9개 소비자단체 30여 명의 임원진이며, 이번 견학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식육판매업소 HACCP 현장 2곳(롯데쇼핑잠실점, 황우캐터링)과 알 가공(조인), 도계와 계육가공(체리부), 유가공(롯데삼강), 오리가공(다영푸드) 순으로 진행됐다.

금번 참석한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은 아니지만, 크지 않은 기업에서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애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이런 업체들에게 정책적인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준원의 곽형근 원장은 소비자단체 임원진들이 직접 HACCP 추진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업체들의 위생 및 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식생활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와 소비자의 징검다리 역할도 함께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검역원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기념행사를 가졌다.

검역원은 100주년 기념영상을 제작하여 기념식에서 상영하는 한편, 검역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 해외 과학자 초청강연회, 동물위령제, 사진전시회 등의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체험행사와 기념콘서트 등

의 축제 한마당, 수의·과학 친선축구대회를 통해 임직원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 간의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본문 108페이지 참조)

한국사료협회

창립 48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사료협회(회장 조남조)는 지난 3일 서초동 소재 음식점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4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조남조 회장은 이날 “우리 협회가 설립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며 “국내 사료산업과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한영양사협회

창립40주년 기념 전국영양사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김경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영양팀장)는 1969년 10월 18일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를 기념하여 7월 23일~24일 2일간 롯데호텔 월드(서울 잠실동 소재)에서 전국의 산업체·학교·병원·보건소·사회복지시설 영양사, 영양학자 및 관계자 4,3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교육과학기술

부·농림수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청 후원으로 『대한영양사협회 창립40주년 기념 전국영양사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계로, 미래로! 국민건강은 영양사와 함께’ 슬로건 아래 영양사가 급식관리자로서 또 교육자, 상담자, 위생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높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역할 정립에 나섰다.

대한수의사회

수의축산 현안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22일 수의사회 관 5층 회의실에서 전문지 기자 및 관련단체 홍보담당자를 초청, 수의축산 현안 홍보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영채 회장은 국내에 산업동물 수의 종사자들이 젊은 수의사들의 기피와 노령화로 인해 산업동물진료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지원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을 위해 “수의사 처방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1년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위한 홍보에 역량을 집중할 뜻을 밝혔다. 신임 노천섭 총장은 향후 기자들과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뜻을 밝히기도 했다.